

북스

어린이 책꽂이



▲스파게티 고양이는 텔레비전 앞에 딱 달라붙어 스파게티를 먹는 '스파게티 고양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비디오 게임 하고 인터넷을 즐긴다 보니 점점 비실비실해지고 얼얼함이 희말장게 변해버린다. 그러더니 마침내 속이 텅 빈 스파게티 국수로 변해버리는데...



▲아빠의 인생 사육법=아이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서 바라본 아빠의 모습이 담겨있다. 상쾌한 아침,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도로가 막히자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아빠, 신문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엄마에게 보여 주려고 달려가는 아빠 등 다양한 모습이 재미있게 표현됐다.



▲서울 샌님 정약전과 바다 탐험대 1=신인 출신 동화작가 김해동씨의 세 번째 동화집.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정약전이 쓴 물고기 사전 '자산어보'를 소재로 했다. 흑산도로 유배온 정약전이 어부와 마을 청년들과 신부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친해지고, 탐험을 통해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기 쉽고 유쾌하게 담았다.



▲나라의 자랑 국보 이야기=재미있는 옛이야기를 통해 나라의 자랑인 보물의 역사와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술성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송례래가 탄생하게 된 이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왜 세계적인 감탄을 자아내는지, 국내의 역사가들이 왜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하는지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난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해=장애아이드 비장애아이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화다. 비장애인 부모와 남동생을 둔 나라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 어느 날, 나라는 학교에서 자신과 같이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아이와 수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애들아, 난 잠쟁이가 될 거야!=다양한 꿈을 향한 노력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동화. 지우의 꿈은 잠쟁이이다. 미래를 다 알아맞히는 꼭꼭 잠쟁이가 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서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항상 못마땅해 하던 짝 '성운'이 조종사의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종이친구=열네 살 소년 제레미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수첩 한 권을 훔친다. 처음엔 주인을 찾아 바로 돌려주려고 했지만 수첩에 적힌 한 소녀의 글과 사진, 암호, 호칭에 반해 몰래 집으로 가져온다. 소녀의 슬픈 가족사를 읽으며 제레미는 누군지도 모르는 수첩 주인과 친구가 된다.

▲노는 게 공부야=풀잎이 놀고 싶어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린 동화. 초등학교 '종백'이는 늘 노는 것만 생각해 엄마가 걱정하고, '기쁨'이는 늘 책만 보는 기쁨이가 뭐가 병이 있는 건 아니지 걱정한다. 그러나 종백이는 기쁨이와 친해지며 책 읽기도 즐거운 놀이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힘보다 이성'...테이블위서 역사를 만든다

위대한 협상

프레드리크 스탠텐 지음



파리 평화회의 결정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위임 통치가 1948년에 끝나고,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아랍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리하자는 유엔의 중재안이 끝내 실패로 돌아가지자 이스라엘은 독립을 선포하고 이집트 등 인근 아랍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유엔은 전쟁의 확산을 막고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스웨덴 출신의 외교관 폴레 베르나도테를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그는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양 진영을 오가며 고군분투했지만 예루

살렘에서 암살되고 만다. 양측의 공격은 계속됐고, 유엔은 베르나도테를 대신해 미국의 정치학자인 랠프 번치를 협상 중재자로 보낸다.

당시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도 나설 지 않을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번치는 어린 시절 양할머니에게서 배운 관용과 포용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재에 임했다.

당구 게임도 휴전 협상에 큰 역할을 했다. 당구를 좋아했던 번치는 양측 대표들과 당구를 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걷어냈고 대표들도 서로에 대한 편견을 씻어낼 수 있었다. 이듬해인 1949년 결국 휴전이 성사됐다.

번치는 휴전 협상을 중재한 공로로 1950년 휴전으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프레드리크 스탠텐가 쓴 '위대한 협상-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은 이집트-이스라엘 휴전협정처럼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

놓은 8가지 협정을 소개한다.

미국의 탄생을 이끌었던 대륙회의와 프랑스 동맹을 비롯해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 지은 빈 의정서, 러일전쟁을 종식시킨 포츠담조약, 핵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넘기게 한 캐나다와 흐루시초프간의 협약 등을 이끌어낸 주역들의 활약상과 협상 과정에 초점을 맞춰 마치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테이블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이성적으로 상대를 설득해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들은 국가의 운명을 뒤바꿔놓았으며 국제 질서를 재편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벤저민 프랭클린이 파리 협상에서 얻어낸 프랑스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흐루시초프 소련 서기장과 극적인 협의를 이룬



1949년 2월 24일, 로스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이스라엘 휴전 협정 서명 광경.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서관 자료)

류를 핵전쟁이라는 대재앙의 위기에 서 견뎌냈다.

저자는 "협대의 외교적 역량들은 소통을 통한 대결 구도의 해소를 위해 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좌절로 접철되어 왔다"면서 "성공한 협상들의 공통점은 힘보다 이성에 의해 승리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협상 당사자들이 노련한 외교술과 결단력을 겸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원제는 'Great Negotiations: Agreement that changed the Modern World'.

〈말·글빛냄·1만5000원〉 /오공록기자 kroh@kwangju.co.kr

법정 발자취 따라 '참된 나'를 찾다

법정 기행

이시현 지음



법정스님 입적 1주기(28일)를 앞두고 스님의 발자취와 순례길을 따라가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에세이 '법정 기행-나를 찾는 또 하나의 순례'가 나왔다.

자기계발서, 기행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쓰고 있는 이시현 씨는 이번 책을 통해 이른바 '법정 순례길'(무소유의 길)을 처음으로 체계화해 정리했다.

저자는 스님의 생가인 해남 선두리와 땅굴 마을, 머리를 깎고 출가한 서울의 선학원, 은사인 효봉 대선사를 모시고 행차시절을 보낸 통영 미려사, 안거 수행을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도반을 만난 하동 쌍계사 탐진, 빨래판(팔만대장경) 이야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참여에 나서게 된 해안사, 성북동 대원각 요정을 시주받아 창건한 길상사 등 11곳을 소개하며 각박한 일상에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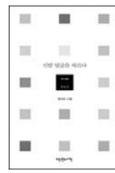
책에는 저자의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실패한 출신인 아버지에 대한 애절한 이야기, 자신은 정작 가난하면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삶,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삶에 대한 낙관을 잃지 않으려 했던 마음 자서 등은 통렬한 감동을 안겨 준다. 또한, 자기 정화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저자의 치열한 번뇌와 해안은 '제대로 마음쓰는 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미디어북스·1만4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美 이민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신발 뒷굽을 자르다

정국희 지음



"덧센 샌 집수풀 뒤져서 / 꺾꽂이로 꽃은 뭍에 뿌리가 내린 것은 / 순전히 부자로 만들겠다는 / 꿈의 의도가 나의 아바타를 조정했기 때문이었다" ('나의 아바타' 중) 안도출신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정국희(58) 시인이 이민자로서의 생활과 고달픔을 이겨내고,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 '신발 뒷굽을 자르다'를 출간했다.

시인은 정겨웠던 고향의 풍경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깊숙이 자리 잡은 그리움을 드러낸다.

"손님 없는 계산대에 앉아 / 깜박 졸음이 들리지만 / 아득하게 먼 옛길이 보인다/그러면 두 눈 그대로 감고 / 맨드라미 싸리나무 옥모초 / 울기종기 줄지어 선 돌담길로 / 찰랑찰랑 걸어가는 어린 소녀 본다 // 사시정철 풍치 좋은 산 아래 / 사대부 집 후손으로 자리잡은 집 / 마당에서 놀던 감뿔 햇살 / 불현 바위로 넘어가면 / 부녀자를 발미 만들어 모여들던 집"

(향수' 중) 특히 정씨의 시는 한국어, 전라도적 언어를 사용해, 정겨운 속에 담긴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미 잊혀진 고향을 되살려준다. 정씨는 '참조문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미주문화회 회장을 맡고 있다. 낸 시집으로는 '맨살나무 숲에서'가 있다. 〈천년의시작·8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디언 피로 물든 美 서부개척사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

디 브라운 지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인디언에 관한 역사책인 디 브라운의 '나를 운디드니에 물어주오'가 새롭게 완역돼 출간됐다. 이번 책은 2007년에 나온 영어판 개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그들(인디언들)의 태도는 예절 바르고 훌륭하다"로 시작하는 책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디언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려준다.

서부 개척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백인들의 잔인한 약탈과 그에 맞서 싸운 인디언들의 눈물겨운 투쟁, 그리고 비운의 멸망 과정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이 백인들의 욕망을 위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부족들이 그들 땅에서 쫓겨나 '주거지역'이라는 황폐한 땅으로 내몰려 끝내는 사라져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02년 번역판에 이어 이번에 책을 번역한 최준성 전북대 교수는 2002년 번역판에서의 일부 오역을 수정하고 특히 이집대 짧은 세대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려운 한자가 표기를 가능한 한 줄였다고 밝혔다.

최교수는 "프린티어 정신은 백인 입장에서는 모험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는 진취적인 이념이었지만, 당하는 인디언 입장에서는 땅과 목숨을 빼앗아가는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출판·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광산구 신촌동 주자리2160평 공사지가5억 매도3999천
•화정동 소방서 부근4차선도로342평 공사지가매도9억
•신인동 삼입지310㎡(94) 공사지3억천 매도292천
•동구6차선 도로와3차선도로코너 상입지589평 건평5637평 공사지가2793천 매도23억
•북구청 부근 대지207 건평220 공사지가7억 매도9억
•대인동 대지149 건평438 공사지가6993천 매도899천
•송정리 금호타이어부근5877평 공사지가295천 매도2996천
•북구 아미타단지 목욕탕, 골프연습장등 대지440 건평507 공사지가9977천 전세295백 월세630만원 13억
•광주역앞 일몰 대지108 건평383 건평199천 매도699천
•화순군 동면 내리면 도로변 농림지적4782평 공평합법 감정가597백 대출295천 매도2996천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68 건평145 매도394천
•월산리출소 앞 버스도로변 서동 대지141 건평은2층과3층2동 이 있음 공사지가495천 감정396천선 매도2996천
•송하동 산3965평 공사지가194천 신고는2억 매도7500
•화순읍 삼현리 주자리적5877평 공사지가394500 매도296천
•금남로57가언 대지111 건평300 객실26 공사지가매도499천
■매도·교환
•두암동 4차선도로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직할792천
•화정동 47리6차선 도로변 준주거480평 매도16억
•화순군 동면 소재지 주택 대지100평 수리해합1900만원
•화순군 동면 서산리 별장촌250평 경관중음4천만원
•남평읍 괴원리 버스도로211평 주택과공평있음1968천백
•전원주택지 화순 남면 서산리233평 경관중음4천만원
•신수동 호남면선영2중주거지220평 시설비적합매도295천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506평 공평적합399천
•부안군 부안읍 아미타 부지1054평 11억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57가123-6, 우리은행47리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관천동 토지305평 건평230평2층건물
감정가995천만 최저가696천만
•광산구 월계동 토지110평 건평375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713억 최저가716억8천만
•함평군 월여면 토지1060평 건물440평
최저가1993천만
•나주시 세지면 토지670평 건물180평
감정가1993천만 최저가7천만
근린주택
•북구 동림동 토지69평 건물120평
1층상가2-3층 다가구주택2억4천만
•담양군 대전면 토지380평 건물150평
감정가395천만 최저가1993천만
향고용지
•장성군 삼서면 대지120평 건물57평
감정가9천만 최저가5천만
•북구 두암동 대대밭과63평형1층
감정가195천만 최저가8천5백만
▶이외 상담물건, 산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담
광주 서구 마북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발당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면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대가19백.000만원. 조양 경관양호.
쌍총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총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대가3.3㎡당 235만원. 카센터.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쌍총동 나대지
서구 쌍총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림로. 매대가 상등형의.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일부 분할가능.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절입. 993㎡(300평).매대가18억. 회사사무. 업무용빌딩.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 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건물매매(용봉지구)
신인동 용봉지구 앞 대지367㎡(111평).3층. 연면적598.8(181평) 매대가75억.보종금6,000만원 월330만원
근린생활시설 입점.
서광구역 뒷 자연녹지
면적 3,835㎡(1160평).4m.진림로. 매대가 3.3㎡당 65만원. 현재 입야.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보종금:10억원 월세: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73억원
☆.보종금1억 월세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32억원
☆.보종금:8억2천 월세: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28억원
☆.보종금:1억1천 월세:350만 매매가:6억7천
♣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322㎡ 건물:95㎡
매매가:5천만원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66㎡
매매가:2억3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1,330㎡건:60㎡
매매가:2억8천만원
☆.담양군 수북면공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답.임야
☆.치평동 대지:370㎡ 매매가:13억5천
☆.마북동(30m도로절입)1,350㎡매매가:22억원
☆.임춘동 정척초마을대:3,600㎡매매가4999천
☆.덕충동 생산녹지 담 434㎡ 매매가1억7천
☆.남구 월성동농로포장도로 코너 3,500㎡
매매가1억3천7백만원
☆.장성남면 임야:13,500㎡매매가:4억5천만원
♣ 공장부지
☆.광산구 양동(계화관리지역)잡종지:11,856㎡
매매가:7억9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산임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예정인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정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헬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대인동 소형서점-편)

애플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중합청사 옆(첨단)
▶1·2층 복층구조
▶전용 32평, 총 64세대
▶각층 시스템 냉방방기 설치
▶관장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
설연구소, 컴퓨터개발
업, 건축설계사무소, 토
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
무실, 종합건축사무실
기타 업종은 상담
즉시 입주 결정
▶성황리 입주중
공동중개 환영!!
010-2441-1610

금산공인중개사
사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삼우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옆
(4면 광로변)
■대지면적
-약 2,850㎡
(180평 분할가능)
■3.3㎡당 매매가
-1,300만원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통가능
장점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③ 롯데마트, 삼우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광주시청 접근성과 광-순간)
⑤ 5·18 광로변
⑥ 상무 신도심 중심 상업 분할가능
※ 10층 신축건물옆 코너
H.P.011-601-5354